

“박근혜사과, 박정희가 환생 화해 청한것 같았다”



1980년 신군부 세력에 불합쳐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담배를 피우는 모습.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사관은 수시로 바뀌었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했다”고 회고했다. 신군부가 촬영해 보관해온 녹화필름 장면.



1962년 5월 10일 이희호 여사와 결혼식 모습.



퇴임 후인 2004년 8월 12일 김대중 도서관을 찾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 현대사의 거목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출간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서전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거하기 전까지 만 6년 동안 준비해 온 기록물로 김 전 대통령의 구술을 바탕으로 생전 기록물들을 참고로 해 정리했다. 자서전의 주요 내용과 사진을 본문 발췌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내 어머니는 둘째 부인, 평생 작은댁으로 살아 이희호의 매력은 은은함... 탐골공원에서 청혼

◇평생 작은댁으로 사신 내 어머니=아버지는 부인이 두 사람이었고 내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다. 아버지는 첫 부인과는 1남3녀, 둘째 부인과는 3남1녀를 두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장남이자 아버지의 차남이었다. 어머니는 큰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살았다.

나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 출생과 어머니에 관해서 일체 말하지 않았다. 많은 공격과 시달림을 받았지만 ‘침묵’했다. 평생 작은댁으로 사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감춘다 해서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고, 나 또한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인연과 화해하셨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보통학교 3~4학년 때는 신문에 일본 내각 개편이 발표되면 그것을 베껴서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 그때 엉뚱하게 나중에 임금이 폐양재단과 생각했다.

◇첫 아내 차용애=1944년 여름, 회사 사무실 밖에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양산을 쓰고 지나갔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더 눈부셨다.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내 상임학교 동급생의 누이동생이었다. 그녀의 집에 자주 찾아가다. 친구를 찾았지만 여동생을 만나러 간 것이었다. 그러다 말문을 뒀고 조금씩 가까워졌다.

◇내 삶의 동반자 이희호=이희호의 매력은 은은함에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사로잡았다. 사랑이 무르익었지만 나는 수동적이었다.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녀는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었다. 날 바라보는 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확인했으면서도 나는 머뭇거렸다. 그러던 3월 어느날 저녁 아직 한기가 감도는 탐골공원에서 결혼에 달라고 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다(1973년 납치 사건)=‘불속에서 쇠뿔이를 벗길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바닷속이니 몇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고통도 사라지겠지. 그러면 내 고단한 삶도 끝이 날 거야. 어떤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것 아닌가.’ 그러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어 먹혀도 상반신만으로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팔뚝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양 손뿔을 묶고 있는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기도드릴 엄두도 못 내고 죽을 앞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셨다. 아, 예수님! 성당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고, 표정도 그대로였다. 웃도 똑같았다. 나는 예수님의 긴 옷소매를 붙들었다. ‘살려 주십

마왔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했다.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뻐했다.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

◇신군부와의 만남=전두환 장군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서울 안국동 뒷골목에 있는 합수부 안가로 찾아갔다. 그런데 정작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권정달과 이학봉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중 특히 이학봉은 나에게 사뭇 위압적으로 얘기했다. 종이 한 장을 불속 내밀더니 각서를 쓰라고 했다.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자중하겠다. 그리고 정부에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복권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종이를 밀쳐 버리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라면 복권시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편 후보 단일화, 나라도 양보를 해야 했다=선거가 끝나자 국민은 큰 상실감에 빠졌다. 민심은 흡사 폭격을 맞은 듯했다. 거리는 너무나 조용했고, 특히 민주 진영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자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어찌 됐든 아편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많은 민주 인사들의 회생과 6·10 항쟁으로 어렵게 얻은 선거에서, 그것도 오랜 독재를 물리치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치른 국민의 직접 선거

상어에게 하반신 먹혀서라도 살아야지... 1973년 납치사건때 강한 삶의 의지 보여

시오. 아직 제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 했던 박정희, 나를 찾아온 박근혜=나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우리로 하면 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어서만 경제를 융이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박정희는 집권 6년 나를 괴롭혔다. 두번이나 나를 죽이려 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말발 박근혜가 나를 찾아왔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만이었다. 그녀는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였다. 2004년 8월 12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박 대표를 맞았다.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박 대표의 손을 잡았다. 박 대표는 뜻밖에 아버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

에서 졌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나라도 양보를 해야 했다. 지난 일이지만 너무도 후회스럽다. 물론 단일화했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저들의 선거 부정을 당시로서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 잘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합당 제의=사실 노 대통령은 내게도 합당을 제의했다. 1989년 말 야당 총재 3명과 청와대 회동이 끝난 후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남아달라고 했다. 둘만 남자 그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김 총재, 이제 고생 그만하십시오.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나하고 당을 같이합시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를 한참 쳐다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나는 군사 정부를 반대하고 쿠데타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과 같이 당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7면으로 계속)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속 있는 온도 선택.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산행하세요!

NO-KA150
290,000원
219,000원 (부가세 포함)

사물감응 내비타! 약 20,000원

비데프라자 | TEL. 062) 515-1144

무인텔

테마

루비어 세울
피스 콜라핀
산토리니 캐주얼
빈기둥 씬
내이치 뉴베드

NAVER 검색창에 무인텔로 검색하세요!

현대백화점 일 LG전자 뒷편 TEL. 062) 523-7789